

광주시, 지역서점 인증제로 동네서점 살린다

5월 1~19일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 구청에서 신청·접수 학교·공공기관 인증받은 지역서점서 도서 우선구매 권장

광주시가 지역서점 인증제를 통해 경영 위기에 빠진 동네서점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5월 1일부터 19일까지 지역 서점을 대상으로 2023 상반기 지역서점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지역서점 인증제는 지역 내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서점 가운데 요건을 충족한 서점을 지역서점으로 인증하고 인증서를 교부하는 제도다. 광주시는 도서관·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도

서를 구입할 때 인증을 받은 지역서점과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자치구별 지역서점 홍보와 서점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 시행할 계획이다. 인증 요건은 ▲지역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서점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서점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 ▲다른 업종과 겸업하지 않으며, 겸업하는 경우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이 도서 판매를 통한 금액인 서점이다.

광주시는 지난 2월 23일 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를 개정, 지역서점 인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요성 광주시 문화체육실장은 “온라인서점과 전자책 이용 증가로 지역서점의 소멸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이라며 “지역서점 인증제를 통해 오랜 기간 시민 문화생활의 거점 공간이었던 동네서점이 활성화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광주·전남기업, 납품대금연동제 ‘반신반의’...이해·기대 ‘보통’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은 오는 10월 본격 시행되는 ‘납품대금연동제’에 대한 이해와 기대가 보통 수준을 보이는 등 ‘반신반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정창선)가 광주·전남 기업 11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3월 16일부터 29일까지 지역기업 의견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연동제에 대한 전체 응답기업들의 이해 정도는 아직까지 ‘보통 수준(46.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편(33.6%)’, ‘높은 편(20.0%)’이 뒤를 이었다. 거래유형별로는 원청(위탁)기업은 상대적으로 이해 정도가 높은(35.0%)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청(수탁)기업은 원청기업에 비해 이해 정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납품대금연동제 시행이 귀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보통(49.1%)’, ‘긍정적(42.7%)’, ‘부정적(8.2%)’ 순으로 답했으며, 원·하청 기업 모두 납품대금연동제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대금연동제에 긍정적인 기업들은 가장 높은 비중으로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른 경영 위험부담 완화(91.5%)’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상생협력문화 조성(10.6%)’, ‘위탁제품 공급망 안정화(8.5%)’ 등을 꼽았다. 부정적인 기업들은 ‘원청기업의 거래처 변경 우려(44.4%)’가 가장 우려된다고 답했으며, 이어 ‘대·중소기업 간 자율거래 제한 및 정부개입 확대 등 시장조정기능 저해(33.3%)’, ‘경영기밀 유출 우려(22.2%)’ 등 또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예상된다고 응답했다.

부정적인 기업들은 ‘원청기업의 거래처 변경 우려(44.4%)’가 가장 우려된다고 답했으며, 이어 ‘대·중소기업 간 자율거래 제한 및 정부개입 확대 등 시장조정기능 저해(33.3%)’, ‘경영기밀 유출 우려(22.2%)’ 등 또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예상된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9월부터 추진되어 온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참여한 이력이 없다”는 응답이 대부분(97.3%)이었으며, “참여한 이력이 있다”는 응답은 2.7%에 불과했다. 납품대금연동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과제로 응답기업의 43.6%가 ‘세제·금융상의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과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등의 신속한 정보제공(41.8%)’을 꼽았으며, ‘납품대금 연동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제공(18.2%)’, ‘(원가공개 문제 등) 기타(1.8%)’가 뒤를 이었다. 납품대금연동제 시행에 따른 ‘경영 위험부담 완화’를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업체들은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등의 신속한 정보제공(53.5%)’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도 시행에 따른 ‘원청기업의 거래처 변경’을 우려하는 업체들 또한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등의 신속한 정보제공(50.0%)’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납품대금연동제가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와 기대감이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면서 “납품대금연동제 시행시 경영 위험부담 완화 등 긍정적인 효과들이 기대되는 만큼,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과 더불어 지역 기업 대상의 교육 및 정보제공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현대삼호重, E-9 비자 외국인근로자 특화 훈련 본격화



현대삼호중공업 사내외 협력사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난 24일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특화훈련과정'에 참여해 수업을 받고 있다.

HD현대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이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특화훈련과정'을 본격 운영한다. 이번 과정은 최근 조선업 수주 증가에 따

라 인력 수요가 늘어나자, 비전문 취업 비자인 E-9 외국인 근로자를 효율적으로 현장에 공급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24일 첫 수업을 시작해 오는 5월 23

일까지 20일간 회사 기술교육원에서 선제조립과정 13명, 선제도장과정 12명 등 총 25명의 협력사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올해 안으로 6개 과정 360여 명에 대한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5월 23일까지 20일간 선제조립·도장과정 협력회사 인원 25명 교육 훈련기간 임금 100% 제공...수료 후 자격 취득·인센티브 등 지원

훈련은 한국어 교육을 포함해 직무별 교육 과정에 따라 운영되며, 수료 후 ▲용접 ▲취부 ▲비계(족장) ▲고소차량 등 자격 취득도 지원한다.

훈련 수료 시 근로자에게는 장기근속 특례 인력전환 시 경력 요건을 6개월 단축해주며, 기업에는 ▲고용허가서 발급 시 가점 부여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상향 검토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훈련 참여기간 동안 정부에서 임금도 지원한다. 사업주의 통상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해 최저임금의 150%와 주휴수당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이번 특화훈련과정 참여를 위한 정부지원금을 신청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약 13억 원의 예산을 확보, 부족한 교육시설 및 장비에 투자할 방침이다. 영암=조대호기자

김영록 전남지사 “새마을운동, 국민통합 공존시대 이끌어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운데)가 25일 오전 순천팔마체육관에서 열린 제13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에서 유공자에 대한 도지사 표창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남도 제공)

순천시 새마을운동 기념식 ‘생명·평화·공동체’ 공존 강조

전남도는 25일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새마을운동 제창 53주년을 맞아 제13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과거를 넘어 젊은 새마을운동으로 지평을 확대할 것을 다짐했다.

전라남도새마을회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 노관규 순천시장, 광대훈 새마을운동중앙회장, 이귀남 전남도새마을회장과 22개 시·군 새마을지도자, 회원 등 1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다시 새마을운동, 세계와 함께’를 주제로 유공자 표창, 주요 인사의 격려사, 축사, 퍼포먼스 순 등으로 진행됐다. 유공자 표창에선 코로나19 방역 활동,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나무 심기,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등 나눔과 봉사를 실천한 새마을 유공자 28명에게 전남도지사, 새마을회중앙회장 표창을 전달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새로운 세대 참여를 통해 젊은 새마을운동으로 지평을 확대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퍼포먼스는 새마을운동이 과거의 운동이 아니라 우리 사회 현재를 지키는 원동력이자 밝은 미래를 여는 희망이라는 의미를 표현해 참석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김영록 지사는 격려사에서 “과거 새마을운동이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을 통해 가난으로부터 탈출을 이끌었다면, 이제는 생명·평화·공동체 정신으로 국민통합과 공존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나보다 지역과 주민의 삶을 생각하는 새마을 정신을 계승해 더 많은 발전과 번영을 통해 세계로 뽐내자는 전남 대도약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한정승인 공고

사 건 번 호 :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3.년 149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망 박기숙 (390630-1628011)
 최 후 주 소 : 전남 구례군 구례읍 중앙로 34, 3층

위 망 박기숙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3년 4월 26일

공 고 인 : 박중문
 주 소 : 전남 구례군 구례읍 구례2길 105, 102동 603호(섬지뜰아파트)
 한정승인수리일 : 2023년 4월 20일
 공 고 기 간 : 2023. 4. 26 ~ 2023. 6. 26

한정승인 공고

사 건 번 호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년 33 특별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망 신정우 (370828-1654316)
 최 후 주 소 : 전북 정수군 장계면 한들4길 5-1 (장계리)

위 망 신정우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3년 4월 26일

공 고 인 : 신원형
 주 소 : 나주시 가마태길 38, 101동 304호(용산동, 용산주공아파트)
 한정승인수리일 : 2023년 4월 18일
 공 고 기 간 : 2023. 4. 26 ~ 2023. 6. 26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므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보험료 부담	급여비	비율
5분위 고소득층	240,833원	1.1배
4분위	125,531원	1.7배
3분위	79,147원	2.1배
2분위	48,103원	2.7배
1분위 저소득층	26,697원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1577-1000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